

성도의역 9 1996  
6  
별채 부록 : 어린이판

말씀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 표지 설명

**앞 표지:** 그림: 로빈 룩 그리고, *생명의 나무에 관한 시현*, 1983년, 미국 유타 주 웨스트밸리, 공예 유리와 납(167x121x31cm) 생명의 나무를 나타내는 밝은 색과 물문경에서 예언자 리하이의 시현에 관한 부분에 나오는 음습하고 어두운 세상을 나타내는 회색이 대조를 이룬다. 나무 아래에서는 리하이가 나무 열매를 그의 아내 새라이아와 함께 나누고 있다. 저 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세 여성이 식탁대를 잡고 나무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생명의 나무” 34쪽 참조

(사진 촬영: 로널드 리드,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뒷 표지:** 그림: 로드레스 샴스, *리하이의 꿈*, 1995년, 필리핀 바타안, 직물 위에 바느질하여 제작 (114x76 cm) 리하이와 니파이가 “주님의 영”을 통해 보게 됨.(니파이일서 8:5-6, 11:11 참조)

(사진 촬영: 알 티 클라크,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 어린이란 표지

아이슬란드에는 여름이 매우 길고 겨울이 매우 짧다. 아홉 살의 브리놀푸르 올라프손(오른쪽)과 그의 형인 마티아스는 부모님 및 누이들과 함께 이곳에 살고 있다. 하지만 낮이 길든 짧든, 항상 북을 및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친구 사귀기, 14쪽 참조  
(사진 촬영: 제넷 토마스)

##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충실한 신앙”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2
야렛의 동생: 학습의 달인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16
아내에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 내가 배운 것 개리 엘 그레이 .....	22
가르치기 위해 준비함 레이 엘 라슨 .....	26
아빠는 이런 말을 쓰실까? 캐롤리 에이치 스미스 .....	31
생명의 나무: 리하이의 꿈 — 시현에 대한 이야기 .....	34
빛나는 경전 릴라 비블릿 쿤스 .....	48

## 청소년란

특별 올림픽 봉사자 로리 리브시 .....	12
불경스런 욕설 로버트 케이 델린버흐 장로 .....	28
하수도 안에 숨은 적 존 바이다웨이 .....	32
요셉의 아들, 요셉 제이 토드 마틴과 리사 에이 존슨 .....	42
키 올려 재기 로이드 뉴웰 .....	46

##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	1
물문 메시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	11
방문 교육 메시지: 성약에 따른 상속자 .....	25

## 어린이란 (별책 부록)

산 위의 불 로이드 에이치 패리 .....	2
노래: 용감한 종 반자 와이 왓킨스 .....	5
친구가 친구에게: 제이 이 쟈슨 상로 .....	6
함께 나누는 시간: 창조에 대한 경의 캐런 애쉬튼 .....	8
심심풀이 .....	10
이야기: 육상 경기장 테리 스티인즈 .....	11
친구 사귀기: 아이슬란드 후프나르프요루두르에 사는 브리놀푸르 비디르 올라프손 디앤 워커 .....	14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고든 비 헝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윌 톰 패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날 에이 맥스웰, 리셀 엠 벨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리셀 벨란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윌 출랜드, 헨리 비 아이어랑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랜드  
 고문: 스펜서 제이 콘드, 윌 라이오널 캔들러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널드 윌 니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윌러 윌 로이보그

편집팀: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윌 빌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마셜, 디앤 워커  
 편집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부장: 매리엔 마틴데일  
 제작보조: 캐스 데일리

디자인팀: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앤 가워시끼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켈렌  
 디자이너: 캐리 쿡  
 제작 부장: 제이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데니스 커비,  
 매튜 에이치 맥스웰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66호, 제 33권, 제 9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간-3166  
 발행일: 1996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권  
 편집인: 한상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6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8/94 번역 승인-8/94 September, 1996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6989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커다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말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지부만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9.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01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UNDG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 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기어  
 격월간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 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아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 제가 즐겨 읽는 기사

우리는 경전 이외에 교회 잡지를 구독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잡지를 통해서 우리는 총관리 역원들이 권고하는 말씀을 듣게 되며, 형제와 자매의 간증을 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잡지에서 제가 즐겨 읽는 기사는 의로운 말일성도가 되도록 늘 일깨워 주는 대관장단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세속적인 더러움에 물들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슈 후이 윈  
 마카우 지부  
 홍콩, 쿨론 서 스테이크

## 주님께 봉사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1995년 11월 대관장단 메시지, "주님을 섬기고 사탄을 물리침"은 고무적인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애 동안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보다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라 마틴스 알베스 페레이라  
 브라질, 산타 카타리나, 투바르오

## 선교사 잡지

저는 베네수엘라 바르세로나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의 기사는 저의 동반자와 제가 구도자를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복음의 회복에 대해

공부를 하던 젊은 엄마가 고든 비 헝클러 대관장은 하나님의 예언자이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녀는 리아호나에 실린 헝클러 대관장의 메시지를 읽고 이 같은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레나 치리노 자매  
 베네수엘라 바르세로나 선교부

## 손에 든 손수건

세이토 노 미찌(일본어 판)에 실린 기사를 읽고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지 않고는 잡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사루 후쿠오카  
 오가키 지부  
 일본, 나고야 서 스테이크

## 여러 가지 축복

저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 1995년 10월호 "소망할 때"라는 기사를 읽고 매우 훌륭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리 크리스티슨 자매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여러 가지 축복을 일깨워 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나 에루비아 리마 우렐라나  
 키타 새무에우아 와드  
 과테말라시티, 우탈틀란 스테이크

## 편집 노트

애독자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편지와 기사 및 이야기 등을 기다립니다. 성명과 주소, 워드/지부 및 스테이크/지방부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관리 본부 성도의 벗 담당자 앞



# “충실한 신앙”

다음 말씀은 원래 1996년 1월 21일 일요일, 템플 스퀘어의 태버네클에서 가진 솔트레이크 밸리 지역 신학 연구원 대학부 노년의 모임에서 대학 연령의 독신 성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폭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실는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멋진 기회요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명철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고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거나 여러분을 인도해 줄 영감을 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길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역사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에서도 위대한 세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한 세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보다 높은 교육을 받고 있고 세미나리를 거쳐서 이제는 신학 연구원 대학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때에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이해력과 견문과 학식을 위해



그림: 로웰 브루스 베넷,  
기도하시는 주님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를 배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학 체계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학문과 삶의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결혼과 훌륭한 동반자를 찾는 일과 주님의 집으로 가서 거룩한 신권의 권능 아래 결혼 인봉을 받는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학업과 다른 관심 분야에서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은 올바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찌든 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한 편의 성공 드라마 자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그러한 드라마 속에 극복하기를 원하고 또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는 실패라는 이야기가 얼마간 실려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감독님과 이 새출발의 문제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매우 중요한 일원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교회는 매우 강해졌으며, 교회로 인해 여러분의 삶도 보다 운택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느낍니다. 이 사업은 기적적이고 굉장한 방법으로 온 지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약 5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회원의 절반이 유타 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 17퍼센트만이 유타 주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유타 주의 말일성도 수는 더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150개 이상의 국가와 영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밤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나라에서 선교 사업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열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준으로 인해 인정 받고 있습니다. 매 3년 반마다 교회 회원

수가 1백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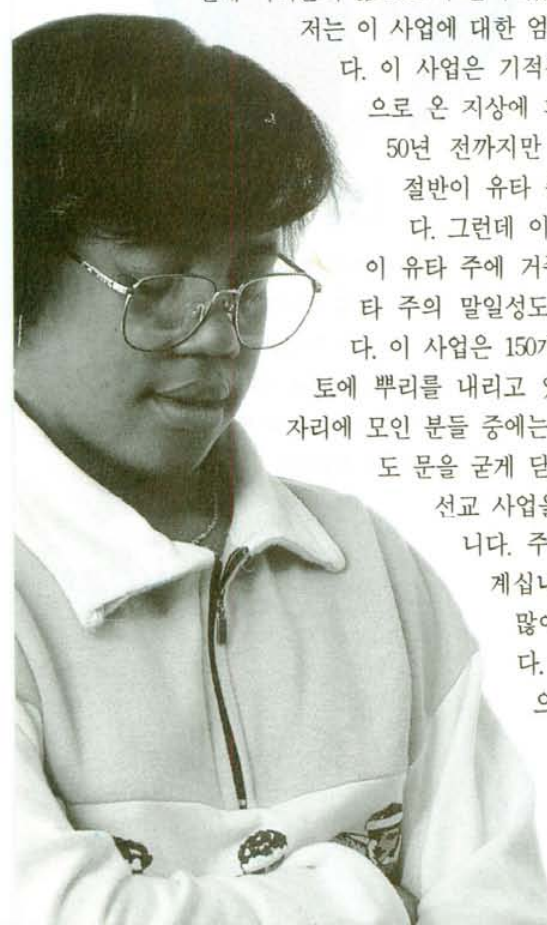
교회의 전망이 이보다 더 밝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회가 이보다 더 많은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님 사업의 역사상 기적과 같은 절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영광스러운 절기에 주목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설명하신 놀라운 목적지를 향해 그분의 사업을 밀고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총관리 직원인 저의 동료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스테이크 부장, 감독, 장로 정원회 회장, 지방부장이나 지부장도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사업을 발전시키 나가고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저마다의 몫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강력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으며,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으며,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비에스 방송국의 60분이란 프로그램의 선임 기자인 마이크 윌러스가 최근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방송으로 인해 교회에 좋은 영향력이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에 걸쳐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질문이 수백 개도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러 질문을 하는 가운데 이 사업의 영향력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세상의 여러 곳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효과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치관은 표류하는 세상에서 가치관의 닻, 곧 안정의 닻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 위에 세워집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지상에 사셨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한 가치관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은 인류 역사 가운데 힘든 시기를 거치며 검증되어 왔으며, 더 이상 향상될 만한 부분이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백성들이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종교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종교





교회는 여러분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기운과 열정을 필요로 하며, 여러분의 충실함과 헌신과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입니다. 자기 수양을 요구하고, 연구와 용기와 신앙을 요구합니다. 가치관이 쇠락해 가는 세상에서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불안정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요구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고와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의 길을 같이 걷자고 권고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진실되고 선한 것을 위해 싸우라고 권고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열정을 필요로 하며, 여러분의 충실함과 헌신과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에야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이 교회를 신앙의 기반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개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보여 주는 본보기로서의 삶을 사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굳이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테이프나 외설 잡지나 장거리 전화나 인터넷 등에는 부도덕한 성과 폭력이 교묘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사업의 동역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멀리 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의 채널을 돌릴 수 있습니다. 흥을 돋구어 여러분을 비극의 길로 이끌기 위해 제작된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거나 구입하는 것을 역병을 피 하듯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제작자밖에 없습니다. 사거나 빌리는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란한 서적 같은 것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힐 뿐입니다.

오래 전, 저는 아시아에서의 교회 업무를 맡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오끼나와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인 군인들이 그 곳에 많이 주둔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차를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들의 차 대부분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범퍼에는 구멍이 뽕뽕 뚫려 있었습니다. 옆쪽 면에도 구멍들이 나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페인트칠된 부분은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된 것은 바람에 실려 날아온 부식성이 강한 바다 염분 때문이었습니다.

음란물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이 외설적인 쓰레기는 바로 부식성이 강한 염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

러한 음란물에 노출시키면 여러분의 전신 갑주는 금방 부식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쓰레기 같은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찌는 동안, 그들의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의 인격은 썩어가기만 합니다. 그러한 물건을 멀리 하십시오. 이겨 내십시오. 그런 물건은 중독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한 물건에 노예가 되면 결국 바로 그 물건에 의해 파멸됩니다.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교양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윌러스와 함께 일하는 팀의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때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 몇 명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저에게 담배를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학생들이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을 거절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문제는 좀 다릅니다. 선을 어디에서 그어야 할지를 구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때 잘못을 범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것은 모두 자기 수련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들에 대해 어려서부터 훈련 받아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르다고 알고 있는 쪽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그 자리에 멈추어서 돌아 나오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것처럼 똑같은 느낌을 가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교리와 성약 121:4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계명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그와 똑같은 말씀들을 반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어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영을 간구하는 가운데, 인간이 가진 의지의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자기 수련을 실시한다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때 유타 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존 에이 윌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 젊은 남자와 여자가 도덕의 원리들을 어긴 뒤 중국에는 서로를 미워하는 가운데 끝을 맺고 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와 똑같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도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겠지만, 후에는 분노와 미움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 여성들 중에는 혼외 임신이 아름다운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 알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행위의 끝없고 영원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전혀 모릅니다. 새 생명을 세상으로 데려오는 일이 중대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여기에는 계속적인 책임이 수반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고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 외의 다른 상황에서 맺는 성관계는 범법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안에, 사랑을 무기로 사귀고 있는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은 바로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표현은 바로 욕욕의 표현일 뿐, 결코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에게 데이트를 권장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서 건전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반드시 그어 놓아야 합니다.

갈라드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치면 열 사람에게도 지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가슴이 순결한 때문이로다."(알프레드, 테니스 경, "갈라드 경")

덕성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힘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진척시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대군에 속하기를 원할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문제에 관해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추악하고 난폭하며 상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님은 돌 판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출애굽기 20:7)

욕설과 상스러운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휘력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혼인으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고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 외의 다른 상황에서 맺는 성관계는 범법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바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빈약하며 표현력도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세상의 구속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 교회의 회원이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베푸신 만찬에서 성찬을 취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그 거룩한 이름들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이 거하는 성전인 신체와 관련된 더럽고 상스러운 말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술을 키우십시오. 엄청난 재산이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똑똑하고 명량한 젊은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말을 귀기울여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재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재기 발랄합니다. 그 대화는 활력이 있으며,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동안에도 너무 웃어서 대화가 중단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상스럽고 외설적인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소위 추악한 농담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머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추악한 농담은 한 마디라도 입에 남지 마십시오. 다음 한 주 동안 친구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이 나중에 후회할 만한 말을 하지 않고도 그러한 건전한 유머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말일성도로서 발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교회를 비판하는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총명하고 유능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젊은이입니다. 여러분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모든 의문 사항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모두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의 흠을 찾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평정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 자신이나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말을 하거나 편지를 보내실 때 매우 우아하고 관대하고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반대로, 교회를 철저히 싫어하거나 저를 몹시 싫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 분들

의 권한입니다. 저는 그 분들에게 어떤 악감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분들에 대해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떠한 영원한 결과가 오게 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두 살 때, 집사 정원회 회장단에 부름 받아 봉사한 이래로 교회의 여러 직책에서 일해 왔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저는 교회 행정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총관리 역원이 되기 오래 전부터 저는 다른 총관리 역원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회 대관장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들도 사람으로서 어떤 사소한 부분에서는 불완전한 점도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라는 느낌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분들에 관해 좋지 않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비판과 배도로 가득한 글이나 말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이름은 감사와 존경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 분들을 비판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세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젊은 시절에 행정 건물에서 일하는 중, 한번은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부터 동반자를 데리고 가서 배도의 성격이 짙은 교회 비판 서적을 많이 써낸 형제에게 교회 선도 조치 위원회가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의 회원 기록이 캘리포니아의 한 스테이크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그곳의 스테이크 부장은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솔트레이크시티로 서한을 가져 가라고 했습니다.

장로였던 저와 제 동반자는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자, 그는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집안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 한쪽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문가에 서서 한동안 우리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야비하고 저속한 말들만 사용했습니다. 그는 협박하는 말도 했습니다. 손찌검을 당하지 않은 것만도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몸집이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임무를 마친 뒤, 문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그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가 생존해 있는 동안, 교리적으로 배도적인 성향을 가진 견해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의 글들은 몇몇 총관리 역원에 대한 그의 비난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도로부터도 읽혔습니다. 그의 두 가지 논점 모두 거짓이었으나, 그의 글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

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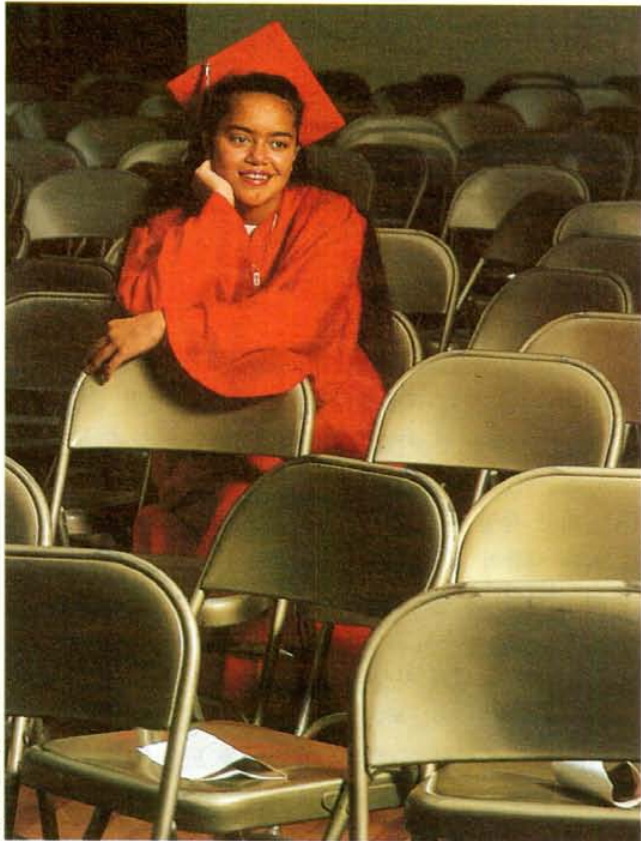
그는 결과적으로 교회로부터 파문당했으며, 그 때문에 몹시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식간에 명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그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함께 왔던 동료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교회의 결점을 찾으려 애쓰면서 자신의 생활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토막 기사 하나를 쓰기 위해 교회 역사를 철두 철미하게 연구합니다. 그들은 결점을 찾아내기 위해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을 분석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까지도 듣고 분석하는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태도를 보노라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 마음이 그들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들이 방법을 변경시키고 견해를 바꾸어 교회로 돌아와 그들의 세능을 왕국을 건설하는 데 활용하도록 실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그러한 일을 즐기는 것 같지만, 그런 즐거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결코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결코 비평가들에 의해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태로 발전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신앙을 갖고, 크든 작든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성도들에 의해 발전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사업에 관하여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그저 평범한 대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이 사업은 교회, 곧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다니엘이 시현으로 본 것처럼,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돌과 같은 것으로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다니엘 2:44~45; 교리와 성약 65:2 참조) 이 복음



지금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가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속하게 될 사회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에 대해 계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요한계시록 14:6)

제가 말씀드린 이 부정적인 것들은 밑바닥에 붙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조개 사탕같이 인생 항로에서 우리가 앞으로 순조롭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보다 높은 곳에 섭시다. 복음을 배우고, 우리 모두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함께 복음을 나눕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만 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개조 제13조)

교회는 영원한 진리를 담은 거대한 저수지로서, 우리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원하는 대로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표준의 보호자요 가치관의 교사입니다. 그러한 가치관들을 몸에 배게 합시다. 그런 가치관들을 가슴에 동여매고, 여러분이 장차 중요한 존재가 될 세상에서 발전해 가는 동안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삶의 지표가 되게 합시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사회는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배울 수 있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강력한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 국내의 일과 외국의 일, 그리고 전쟁과 여러 국민간의 갈등, 지상에 임할 심판 및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지식도 배우게 되리니”(교리와 성약 88:77, 79)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지식을 망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까지도 배우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가르치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학 체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가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속하게 될 사회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차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성실하며 근로자로서의 표준을 지키고 정직하게 일한다면, 여러분으로 인해 이 주님의 교회가 이름을 빛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저에게 “어떤 성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좋아하는 성구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성구가 하나 있노라고 대답합니다. 그 성구는 교리와 성약 50편에 있는 것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덕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어두움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3~24)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이 몇 마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

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계획에 관한 놀라운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배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세와 영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장과 발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훌륭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 전, 저는 그 성구를 암기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성구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한 약속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행복이 어둠이나 사악함이나 죄 가운데서 오는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결코 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표시해 두신 길을 따라 걸을 때에 비로소 오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제 자신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제 나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년 퇴직하는 나이에서 20년이나 더 지난 나이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위대한 대업에 대해 열의가 더욱 불타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업이 바로 전능하신 주님의 사업이며 이 사업이 하늘 아래의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이 생은 영원하며, 아버지께서 우리들 각자를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의 장자요 육으로 난 독생자요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로서, 속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승영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경은 참됩니다. 1830년에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 물론경이 출판되어 나온 이래, 비평가들은 나름대로 그 기원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모두 허사였습니다. 해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감동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94년에 배포된 물론경은 3,742,629권이었습니다. 현재 물론경 전체나 일부분이 88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권이 주어졌습니다. 신권은 참된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시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의 교회를 잘못 이끌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분은 이 교회가 잘 관리되고 발전되며, 회원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말씀으로 양육되고, 이 교회가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주목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이 대업을 도울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선조들이 품으신 참된 신앙”을 갖고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를 가슴에 품읍시다.(찬송가, 141장)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열정과 배움의 정신을 갖고,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덕과 의의 삶을 사는 동안, 하늘이 열리고 축복이 여러분 위에 쏟아 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는 바를 함으로써 평안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겸손하게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말일성도는 오늘날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부도덕한 성과 폭력을 결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2. 말일성도는 오늘날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추악하고 난폭하며 상스러운 언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깔끔한 대화술을 키워야 한다.
3. 말일성도는 교회와 그 지도자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님의 사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4. 한 백성인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다. 우리에게 신권이 있으며, 계시의 영이 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그분의 교회를 잘못 인도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림: 미나르비 데이제트, 어린이들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 교회 역사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용서, 사랑  
즉, 진정한 평화(요한복음 14:27 참조)를 느끼십시오.



# 특별 올림픽 봉사자

로리 리브시

**로**버트 노턴은 자전거를 탈 때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로버트는 아침 여덟 시면 밖에 나가서 밤 열 시까지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곤 했습니다. 그는 코네티컷 주에서 열린 특별 올림픽에서 가장 빠른 자전거 선수가 될 정도로 자전거를 잘 댔습니다. 그가 특별 올림픽에 참가하기 전에는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지내곤 했지만, 특별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전에는 학교 학생들이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로버트의 동생, 리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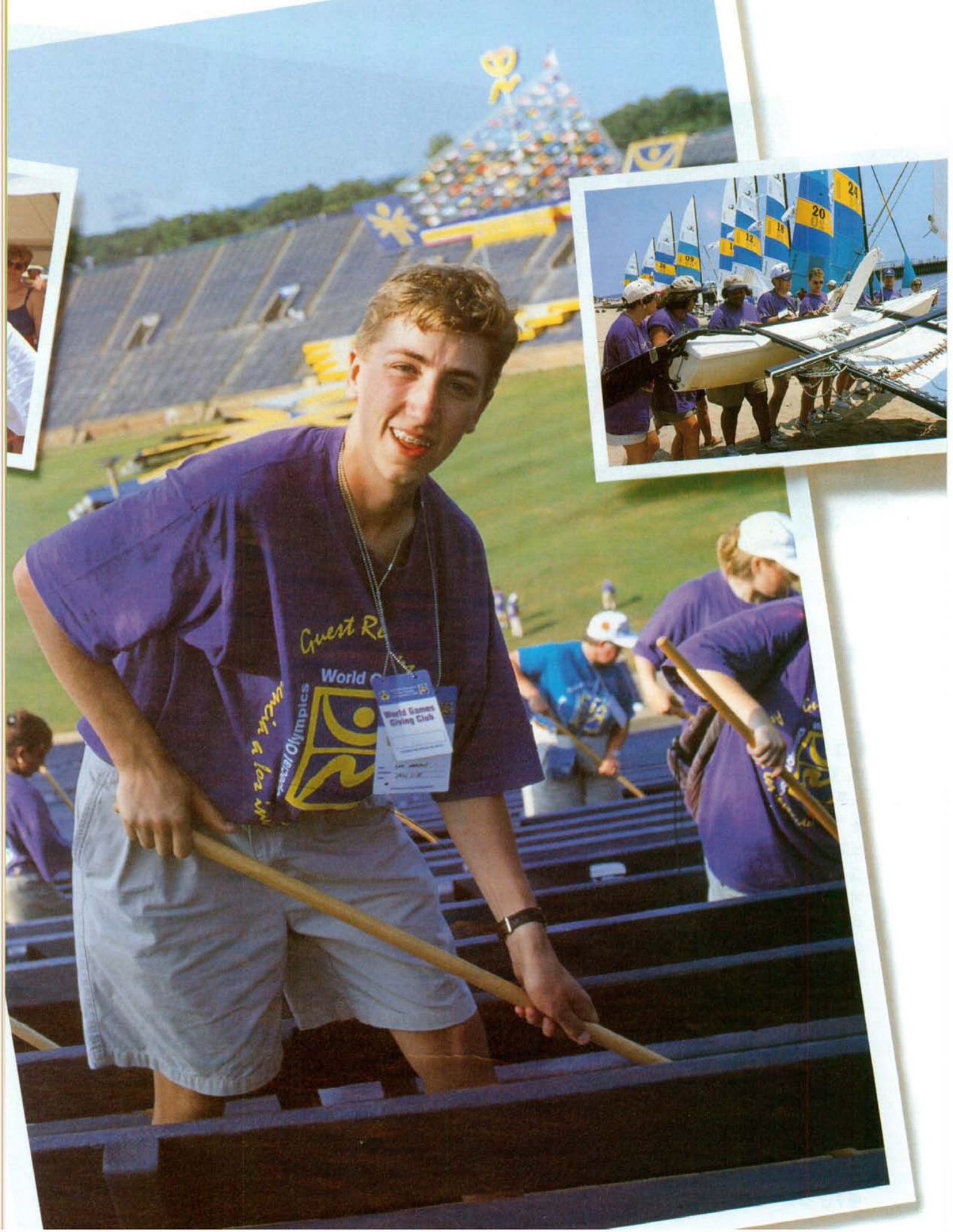
거의 30년 동안, 특별 올림픽은 장애인 운동 선수들이 지방, 전국 및 국제 경기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로버트는 1992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특별 올림픽에 여러 번 참가했다. “형이 몹시 보고 싶어요. 형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 올림픽으로 인해 사실상 형은 인생에서 성취감을 느꼈으며, 그것은 형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리는 말한다.

특별 올림픽이 리를 포함해서 말일성도 십대 그룹에게 굉장히 훌륭한 행사가 되었다. 이에 관한 로버트의 추억은 잊혀지지 않았다.

## 세계 경기 청소년 대회

1995년 여름에 미국의 코네티컷 주와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는 세 개의 스테이크의 지도자들은 세 개의 청소년 대회를 하나로 합쳐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열다섯 살이며, 뉴 헤이븐 스테이크, 뉴 타운 와드의 교사인 리는 이렇게 회상한다.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청소년 대회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원 가꾸기와 그와 비슷한 일인 지역 사회 봉사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커네티컷 주, 뉴 헤이븐과 그 주변에서 열릴 제9회 특별 올림픽 세계 경기에서 도와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 제안은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받아들여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세 개의 스테이크로부터 400여 명의 말일성도들이 자원 봉사자로 등록했다.



Guest Relations

World Games

Special Olympics  
Cancun & Los Angeles

World Games Giving Club



그 청소년 대회的主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였는데, 말일성도 십대들이 바로 그 빛이었다. 그들은 치어리더로부터 구내 매점에서 돕는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을 맡아 봉사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좇볼과 같다고 느꼈고, 이 선수들을 돌보고 그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그 빛을 서로 서로에게 건네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훌륭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봉사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요청할 수 없었던 리는 말한다. 리가 사는 주에서 여러 가지 경기가 열렸었지만, 그가 아는 경기가 있다면, 그것은 특별 올림픽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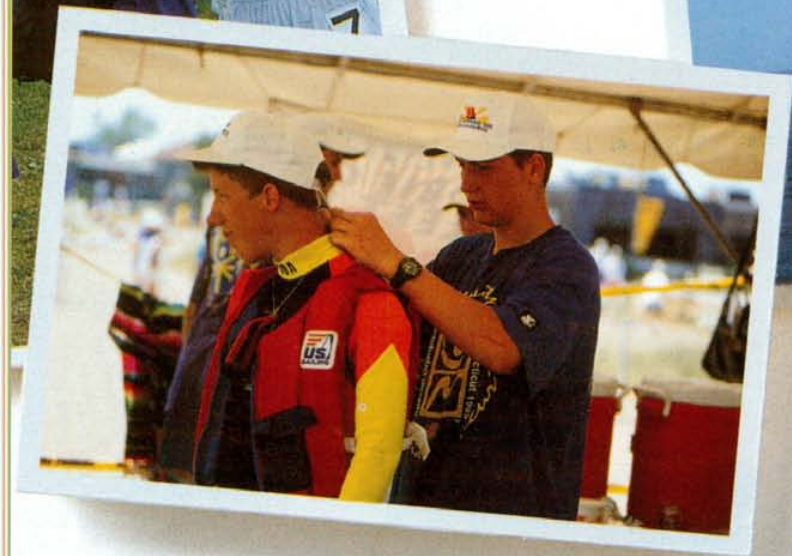
그의 형 로버트가 특별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리가 코네티컷 주에서 열린 경기를 위한 특별 올림픽 자원 봉사자였을 때인 1994년에 그가 보낸 모든 시간들 때문에, 리는 세계 경기에서 자원 봉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나이 때의 청소년들이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선수들을 돕고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가를 배우는 것을 지켜 볼 수 있었다.

“저는 모든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선수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서로 손바닥을 마주 부딪치거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었습니다.”라고 리는 말한다.

“우리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봉사하기를 원했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봉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다해서 힘껏 노력했습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결승선을 일등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벤 조헨슨은 말한다.

제1회 국제 특별 올림픽이 1968년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열렸다. 그때 캐나다와 미국으로부터 1,000명의 특별 올림픽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제는 특별 올림픽이 약 140 개 국가로부터 7,000여 명의 선수들과 45,000 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참가하는 경기로 성장했다. 1993년에 처음으로 동계 특별 올림픽이 북미 이외의 지역인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다. 유럽 하계 특별 올림픽은 벨기에와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되어 왔다.





코네티컷 주에서 열린 1995년의 육상 경기장에서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선수들이 들어가는 트랙 입구에 모여서 악수를 하고 등을 두드려 주며 그들을 격려했다. 말일성도 봉사자들이 선수들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선수들은 더욱더 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미소짓거나 축하한다고 말할 때, 그들은 정말 행복해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쾌활해지며 이야기가 많아집니다."라고 스테파니 페리는 말한다.

말일성도 자원 봉사자들도 그와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 또 다른 청소년 대회에서도 우리는 봉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 감사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대회에서 일한 사람들의 반은 우리가 한 일이 감사 받을 만했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합니다. 서로 함께 어울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뿐입니다. 우리가 악수하고 손바닥을 마주칠 때 이 선수들이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메릴리 헤일즈는 말한다.

"가장 훌륭했던 것은 우리가 특별 올림픽 선수들과 함께 보낸 시간과 그들이 저에게 보여 준 모범이었습니다."라고

벤 스트래트포드는 말한다.

## 그것의 의미

뉴 헤이븐의 어느 지독히 더운 날에 많은 청남 청녀들이 손에 비를 들고 예일 대학교의 미식 축구 경기장에 모였다. 그들이 할 일은 세계 경기의 폐막식을 위한 준비로 쓰레기를 쓸어 버리는 일이었다. 리는 쓰레기 더미를 쓰레기 봉지에 담아 넣는 동안, 그는 잠시 그 일을 멈추고 봉사하는 사흘 동안 그들이 해 왔던 일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했다.

"비로 쓰는 일은 육체 노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질을 다한 후에, 그 경기장은 여러분이 비질한 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수들은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리가 특별 올림픽 선수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동안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고, 특히 선수들이 그에게 미소짓곤 할 때 그랬다. 그리고 리가 그들에게 미소로 답할 때, 그는 그의 형 로버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



# 야렛의 동생

## 학습의 달인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배**우기를 게을리 한다고 해서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은 괴로운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독일어 선생님이 저의 책상 곁에 서서 잠시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독일어로 해 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제가 공부를 하지 않으니깐 바보이고 장차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웠거나 공부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독일어 선생님과 피아노 선생님,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 느끼는 후회보다는 더 오랫동안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후회스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신앙, 회개, 성신 및 사랑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건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때에 야렛의 동생의 눈에서 막이 권혀져 저가 주의 손가락을 보니...  
야렛의 동생이 두려움에 질려 주 앞에 쓰러졌느니라.”  
(이더서 3:6)

독자들께서도 후회스럽던 일이 있겠지만, 저의 지나간 날의 후회스럽던 일을 들으시고 더 훌륭한 학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야렛의 동생의 생애에서 위로와 제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야렛의 동생의 생애를 바꿔 놓은 주님의 책망이 여러분의 일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야렛의 동생과 더불어 간구하십시오.

“사년이 거의 끝날 무렵 주가 다시 야렛의 동생에게로 오셔서 구름 가운데 서시어 무려 세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야렛의 동생을 꾸짖으시니, 이는 저가 주의 이름을 일컬어 간구하기를 잊었던 까닭이라.”(이더서 2:14)

이처럼 슬픈 이야기에서 언급된 4년의 세월과 세 시간은 야렛의 동생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고 선생(주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행을 멈추고 바닷가 천막에서 4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야렛의 동생과 그가 거느린 백성과 동물들은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일본도 아니요 오분도 아닌, 무려 세 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내어 야렛의 동생이 태만한 것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4년의 세월과 세 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학습의 장벽과 학습의 관문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에, 4년의 세월이 중요했던 까닭은 바벨탑의 혼란으로 시작된 여행 기간 중에 야렛 백성이 태만하고 게으름을 피웠던 시기였고, 그러고 나서 지도에도 없는 아시아의 황무지를 지났으며, 주님의 꾸짖으심이 있은 후에, 주님의 지시에 따라 폭풍이 몰아치는 심연의 바다를 횡단하여 다른 모든 땅 가운데서 으뜸되는 땅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는 이 극적인 상황을 대회의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전대 미문의 이더서를 접한 항해자들은 매우 곤혹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것은 육로 여행의 거리, 범위 및 도처에서 겪은 위험은 거의 믿기 어려운 정도의 것이었는데다가 이 여행에 대한 얘기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바이킹보다 수세기를 앞서서 대양을 횡단하여 세계 일주를 하고, 그 여행에는 폭풍, 보이지 않는 암초, 태풍 및 폭동을 비롯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최초로 기록된 대양의 횡단은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항해에는 지장없지만, 돛, 엔진, 노 또는 키도 없는 배처럼 생긴 데다 노아의 방주의 시대와 거의 같은 시대에 여덟 척의 원양선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배는 나무처럼 길고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물살 틈 없는 점사 같았고, 양 끝은 뾰족하였으며, 배의 위 쪽과 밑바닥에는 코르크로 밀폐되었으며, 라뎀이나 어찌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을지 모르는 다른 어떤 물질로 된 작은 돌로 선내를 밝혔습니다.(이더서 2:20; 3:1 참조) 가볍고 물 위에 떠 있는 새처럼 생긴 배들은 바람과 해류에 밀려 북미주의 서쪽 해안의 어느 평범한 지점에 닿게 되었습니다.”(대회 보고, 1963년 4월, 63~64쪽)

이 매우 위험한 여행을 이끈 사람은 야렛의 동생이었습니다.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마흔리 모리엔쿠머였던걸로 알려져 있습니다.[조지 레이놀즈, “야렛 백성,” 청소년 인스트럭터, 1892년 5월 1일자, 281쪽의 각주 참조]) 4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야렛의 동생의 생애 기록을 보면 그는 과



신약 : 101

“무려 세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야렛 형제를 꾸짖으시니, 이는 저가 주의 이름을 일컬어 간구하기를 잊었던 까닭이라.”

(이더서 2:14)

감한 행동력을 지녔고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믿기 어려운 특징은 이야기의 첫머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주님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혼란케 한 때에 그의 능력과 형인 야렛과의 독특한 관계는 얘기의 중요한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야렛의 동생은 크고 힘이 세며 주의 사랑을 입은 자였더라. 야렛이 동생에게 이르기를, 주께 간구하여 주가 우리들을 혼란케 하지 않으시도록 하여 우리가 서로 우리의 언어를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하자 하니,

“야렛의 동생이 주께 간구하며, 주가 야렛을 가엾게 여기신지라 야렛의 언어를 혼란케 하지 아니하신 고로 야렛과 그의 동생이 서로 혼돈되지 아니하였더라.”(이더서 1:34~35)

마흔리 모리엔쿠머는 자신과 형을 위한 축복을 받게 되자 그들의 친구들도 혼돈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라는 야렛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인가 여쭙어 보기 위해 간구하라는 받아들임으로써 그 축복

을 받았습니다.

“주가 야렛 형제의 간구를 들으사 저를 어여뻐 여기시어 이르시기를,

“가서 가축을 그 종류대로 암놈 숫놈을 함께 모으고 너의 가족과 네 형제 야렛의 가족과 너희 친구와 그 가족들과 또한 야렛의 친구와 그 가족을 함께 모으라.

“너희가 이같이 하고 나서 저들을 이끌고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요.”(이더서 1:40~42)

하나님으로부터는 물론이요 자신의 형에게서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를 듣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오랫동안 간구한지라 내가 이같이 행하노라.”(이더서 1:43) 모리엔쿠머가 크고 강하였지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여행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히 가르쳐 주신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사 전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광야로 나아 가라 하시고, 저들의 앞에 가시며 구름 안에서 저들과 말씀하시면서 나아갈 방향을 일러 주셨느니라.

“저들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큰 배를 만든 후 그 배를 타고 계속하여 주가 친히 이끄시는 대로 바다를 건넜으며”(이더서 2:5~6)

모리엔쿠머는 형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간절히 기도를 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온갖 가축떼를 이끌고 길도 없는 황량한 육지와 바다를 횡단하여 마침내 바닷가에 도달하였습니다. 거기서 천막을 치고 4년을 지냈습니다. 이처럼 온갖 고난을 겪은 그가 4년이 끝날 무렵 주님을 잊었다고 하여 크게 꾸지람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4년간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치고 너무 간단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제 나는 나의 기록을 계속하리라. 보라 주가 야렛과 그 동생들을 인도하사 땅을 갈라 놓은 큰 바다로 데려 가시매 저들이 바닷가에 이르고 나서 천막을 치고 그 곳을 모리엔

쿠머라 이름하였으며, 그 바닷가 천막에서 사년을 지냈더라.”(이더서 2:13)

짐을 내려놓고, 바닷가의 평야에서 가축을 놓아 풀을 뜯게 하며, 천막을 친 다음, 저들을 무사히 데려다 준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그 곳을 모리엔쿠머라 했으니,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쉴만 하지 않을까요? 경전은 사람들이 그동안 “주의 이름을 일컬어 간구하기를 잊었던 까닭”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경험을 미루어 보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곳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걸릴지도 모르는 병마가 기다리는 미지의 광야 또는 낯선 바다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축복을 달라고 간구하여 일단 축복을 받고 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천막을 치고 나서 더 이상 축복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지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여행을 무사히 마친 것은 저들의 용기와 노고 덕택이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칭송하고 성공에 대한 꿈은 우리의 몫이라고 부추겨 주님의 축복을 잊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의 대부분을 온갖 위험 속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형제나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모리엔쿠머에게 내린 꾸지람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은 없고, 이보다 훌륭한 모범을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리엔쿠머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에 야렛의 동생은 저가 범한 행악을 회개하고 그와 함께 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가 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너의 형제들과 저들의 죄를 각각 용서하려니와 다시는 죄 짓지 말지니, 나의 영이 항상 인간들과 더불어 함께 하지 않는 줄을 너희가 기억할지니라. 너희가 죄를 범하여 마침내 죄로 무르익게 될진대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리도다.”(이더서 2:15)

모리엔쿠머는 회개를 함으로써 다시 가르침을 잘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배의 건조를 위해 전에 받은 바 있는 지시에 다시 순종하고 주님이 세세히 일러주신 대로 배에 공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님

께 선내를 밝혀 주는 조명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주님께 서 조명 문제를 해결하신 방식은 학습의 또 다른 일면, 즉 학생이 자발적으로 숙제를 하려는 의지를 시험한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알고 있는 선내의 조명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신중히 문제를 규명하신 다음, 모리엔쿠머가 해결책을 구상한 다음에야 비로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야렛의 동생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주님이 하실 일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주가 야렛의 동생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너희 배 안에 빛을 있게 하도록 내게 청함이 어쩐이나? 보라 산산 조각이 날 것인데 너희가 창을 달지 못하겠고 불빛에 의지하여 나아가지 못할 것인즉 불을 달지 못하리니.

“보라 너희는 마치 바다 한 가운데 있는 고래와 같아 산 같은 파도가 너희를 뒤덮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깊은 바다에서 인도하리니, 내 입으로 바람을 불어 보내며 비와 홍수를 보낼 것임이라.

“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두고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였으매, 내가 준비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가 이 파도와 바람과 홍수를 피하여 크고 깊은 물을 건너지 못할지니라. 그렇거늘 너희가 깊은 바다에 빠져 삼켜질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이더서 2:23~25)

야렛의 동생은 바위를 가열하여 16개의 투명한 돌을 만든 다음, 셀렘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 그가 할 수 없는 부분, 즉 돌에서 빛이 나오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이가 바쁜 선생을 붙잡고 질문을 하거나, 이 학생 저 학생에게 신경을 쓰느라 여념이 없는 선생님에게 질문하듯이 졸라대지 않고, 시간을 내어 용서를 빈 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권세를 굳게 믿는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주님은 야렛의 동생의 해결책을 존중하는 표시로 돌을 만지자, 그의 눈에서 막이 걷히지면서 주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란 나머지 그는 주님에게 모습을 보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부탁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과거와 미래의 역사를 모두 시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야렛의 동생이 본 것은 너무나 기이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나타내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대회 말씀에서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회원의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물문경을 주셨습니다. 그 취지는 물문경에 기록된 권고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있으나, 참뜻은 더 큰 데 있습니다. 즉, 니파인들이 짧은 역사 기간을 통해 그리하였듯이,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계명을 받으면 바로 신앙을 발휘하여 기꺼이 계명을 지키려 한다면,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또 다른 기록을 가져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우리가 받은 물문경을 읽고 권고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시험 기간 중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대회 보고, 1961년 10월, 20쪽)

이 말씀의 뜻을 진지하게 음미해 보면 우리는 모리엔쿠머가 회개를 하고 나서 그랬던 것처럼 가르침을 잘 따르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공부하고 지키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은 야렛 백성이 4년 동안 게으름을 피웠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야렛의 동생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꺼이 배우려 한다면, 야렛의 동생의 영적인 축복이 가득 담긴 기록을 언젠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렛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에 의하면, 축복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권고를 받지 못할 경우 즉, 주님의 이름을 일컬어 간구하기를 잊는다면, 우리가 처하게 되는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신앙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리엔쿠머를 꾸짖고 가르치는 데 아낌없이 베푸는 시간과 배려 속에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교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바다 한 가운데 있는 고래와 같아 산 같은 파도가 너희를 뒤덮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깊은 바다에서 인도하리니."  
(이더서 2:24)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더서의 감상적인 시현보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유의해 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묘지에 가서 죽은 자 중에서 수십 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앙이 있다 해도, 그리고 시현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 말일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겸손하십시오.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위해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빠짐없이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시현을 볼 수 있는 것과 관계없이 말일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집, 3:211)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랫의 동생처럼 장엄한 시현을 보게 될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차라리 산 정상에서 가져온 작은 돌이 발산하는 눈부신 광채,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4년 동안의 평온한 광경, 세 시간 동안 주님과 의 면

담의 광경을 떠올리며 모리엔쿠머를 생각하고 교훈을 삼는 편이 낫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바닷가 천막의 말만 들어도 우리가 "길이 없는 황량한 육지"를 방황하거나 또는 노한 영의 대양에 수장되는 처지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형제, 또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내주는 시간에 비해 더 긴 시간인 세 시간의 면담을 생각해 볼 때, 언제건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의 인내심과 사랑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며, 원하면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질 때, 아랫의 동생, 즉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서 중대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아랫의 동생은 평생 동안 가르침을 잘 따랐으며, 백성을 위해 왕을 내세울 경우, 속박을 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 왕을 내세우라는 형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리엔쿠머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권세와 시현을 받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권고를 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관해 그렇게 많은 것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하늘에 관한 이러한 것은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

# 아내에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 내가 배운 것

아내에게 봉사하는 것은 도움을 부탁받기를 기다렸다가 돕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필요 사항을 알아서 돕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의 아내는 나에게 깨우쳐 주었다.

개리 엘 그레이

**나**는 아내 크리스와 제일 가까운 친구이자 사랑하는 부부로서 18년간을 같이 살아 왔다. 기쁨과 시련이 거듭된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받들어 고락을 같이 하였으며 일곱 자녀와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실한 가정을 꾸미려 노력하여 왔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이, 나는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나의 아내에게 봉사함'을 주제로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음이 들떠 있었다. 자신감을 갖고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기본 원리 몇 가지에 초점을 두고 복음 원리의 실례를 보충하여 이만하면 복음에 입각한 훌륭한 말씀이라고 믿는 초안을 작성해 놓았다. 그것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영원한 원리를 주안점으로 하였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요약하였으며 아내를 도와야 할 남성들의 책임에 역점을 두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일과 후 사무실에 남아 말씀의 초안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다음, 큰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향했다. 내가 대중 앞에서 말씀할 기회를 가질 때에는 언제나 사전에 나의 유일한 청중인 아내에게로 가서 말씀의 내용을 대강 설명해 주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내의 지원과 격려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의 내용을 나의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확

신했기 때문이다.

"여보, 당신 잠시 동안 시간 낼 수 있소?" 나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말했다.

"네, 여보. 곧 갈게요. 저녁 밥 다 되었는지 보고요." 안에서 아내가 대답했다.

내가 거실로 들어가 우편물을 집어 들고 있노라니, 아내가 자녀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듣고 보니 샐은 저녁밥 짓는 일을 돕고, 캐시는 밥상을 차리고, 두 살된 아기 케이트린은 옷을 입도록 되어 있었다.

"자,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예요." 아내는 쩍싸게 나를 꺼안고 키스한 후 물었다.

"응, 실은 내가 며칠 후에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말씀을 하게 되어 있소. 이것을 당신에게 읽어 주고 싶소. 그러면 당신이 듣고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말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보 잠깐만요." 아내는 나의 말을 듣다 말고 주방을 향해 아이들에게 이렇게 소리친다. "샐, 고기 탄내 난다. 캐시, 밥상 다 차렸니? 브라이언, 케이트린이 옷입는 걸 봐주겠니?"

아내는 다시 나에게 얼굴을 돌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요. 오늘은 애들 때문에 내가 정신이 없어요. 애들에게 아주 단순한 일까지 알려주어야 하거든요. 당신 무슨 이야기하다 말았죠?”

나는 빙그레 웃고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는데...”

바로 이 때, 브라이언이 들어와 케이트린에게 입힐 옷을 찾을 수 없다고 불평한다. 그러자 아내는 세탁실을 가리켜 주며 거기에 옷들이 또 있으니 찾아보라고 부탁한다. 내가 다음 말을 미처 꺼내기도 전에 케이트린이 악보 서너 장을 들고 뛰어 들어온다.(그 악보는 축제일 합창용으로 아내가 주문한 것이었다.)

이를 본 아내는 “오, 안돼!”하고 말하면서 부리나케 뛰쳐 나가 1백 장 가량 되는 악보 상자를 들고 온다. “이 악보들은 내가 하루 종일 걸려 스펙트와 발성 표시를 해놓은 거야. 케이트린이 이 모든 종이에 낙서를 해서는 안되지.”

아내가 돌아온 후, 나는 말을 계속했다. “내가 할 말씀의 주제는 ‘나의 아내에게 봉사함’인데, 신권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자기 아내에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지 당신이 나에게 말해 주면 좋겠소. 그러면 내가 쓴 초안이 얼마나 당신의 의견에 근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테니깐요.”

“내가 먼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주방에서 점점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아내가 말했다.

“이것은 대충 쓴 초안이에요. 당신의 견지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소. 그러니 말해 봐요. 아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요?” 하고 나는 말했다.

아내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내는 자기 이외의 온

식구를 위해 일하고 있을 때, 기꺼이 거들어 줄 사람을 필요로 해요. 세탁, 요리, 장보기, 육아, 가족 조직 등을 아무런 불평 없이 상냥스럽게 열심히 도울 수 있는 사람,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과 알아주는 말을 언제나 듣지는 못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런 일을 도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해요. 당신의 말씀에 이 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오” 나는 시선을 내리면서 말했다.

아내는 점차 화제의 본론으로 들어가 말을 계속했다. “아내를 돕는 사람은 또한 가족들의 필요 사항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해요.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꺼이 자기의 하는 일을 멈출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가족들의 소유물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이 말씀에는 그 점도 포함되어 있지 않소. 하지만 여기에는 훌륭한 원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오? 남편이 신권을 소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소?”하고 나는 말했다.

아내는 빙그레 웃는다. 아내의 미소는 내가 이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듯한 인상이었다. 나는 아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네요, 신권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지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신권을 활용하는 일이에요. 신권 소유자는 자기 아내를 축복하기 위해 신권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아내가 도움을 부탁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는 아내는 남편이 정말 자기 아내의 필요 사항을 알고나 있나 하고 궁금하게 생각해요. 아내의 필요 사항과 정

서 그리고 매일 겪는 어려움을 남편이 민감하게 알아 줄 때, 그 아내는 자기가 소중히 인정 받고 있음을 느껴요.”

“고맙소”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몸을 굽혀 아내에게 키스를 해 주었다. “그 밖에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봉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소?”

“두 가지만 더 말할겠어요. 첫째, 남편은 아내의 말을 경청해 주어야 해요. 남편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다른 오락물에 빠져서는 안돼요. 남편은 영원한 동반자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온 마음을 다해 경청해 주어야 해요. 부부가 서로 함께 영원을 보낸다면, 서로의 생각, 의견, 걱정, 욕구 불만, 희망 등을 알고 있어야 해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우편물을 가만히 내려 놓았다.

“둘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어야 해요. 아내가 낮 동안 바쁘게 일한 후 조금씩 하거나 속이 상할 때, 아내가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잘못하여 음식을 태울 때, 아내가 자신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임신 4개월 반이 될 때, 또는 아내가 아기를 또 하나 맞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때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해요.”

그날 밤, 나는 말씀의 내용을 다시 썼다. 아내에게 봉사하는 것은 아내가 나의 도움을 부탁할 때에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썼다. 참된 결혼 생활이란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고 돕고 나누고 회생하는 마음, 그리고 사심 없는 마음”에서 오는 행복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나의 아내가 나에게 깨우쳐 주었다. (결혼과 이혼,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6년, 12쪽) □

# 성약에 따른 상속자

"너는... 나의 영원한 서약 곧 나의 복음의  
중간함을 받아 들였으니, 복이 있도다."  
(교리와 성약 66:2)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인 보니  
디 파킨 자매님은 하나님 아버지  
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개인적으로 축  
복하신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  
는 이유를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  
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어 저, 보니 파킨을 도와  
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속과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켜  
제 생활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성  
도의 빛, 1995년 7월호, 77쪽)

성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  
지는 일대 일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성  
약을 제의하여 조건을 붙이시고 우리  
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며(교리와  
성약 82:10; 98:3; 130:20~21), 그분이  
임명한 신권 소유자를 통해 성약을 집  
행케 하신다. 우리는 성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우리는 축복받고, 그 축복은 —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 주님의 사업을 축  
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  
나님 아버지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하나님의 후사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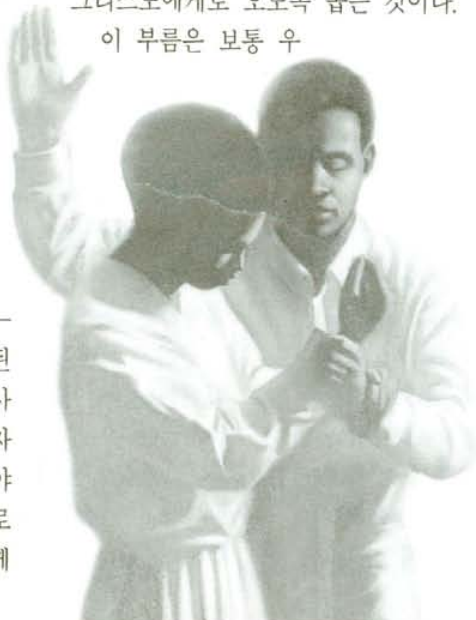
우리는 성약을 맺음으로써 — 이는  
보통 의식 집행으로 이루어지지만 —  
하나님과 의 성스러운 관계를 갖게 된  
다. 예를 들면, 침례 받고 성신의 은사  
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  
녀"로 간주(모세서 6:64~68; 모사이야  
서 5:7)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는 것이다.(로마서 8:17)  
성찬은 우리에게 이 성약을 상기시켜  
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  
곧 우리가 행하면 성신께서 우리와 함  
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우리는 상기한  
다. 더 나아가 성전 의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약을 맺는다. 성전 의식에서  
맺는 성약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  
고 해의 왕국에서의 승명을 위한 준비  
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기뻐하라. 네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라"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위한 복  
음의 사자가 된다. 이 역할을 수행하  
는 분야는 많다. 그 중 기본이 되는 분  
야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으로 우  
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온전하게 하  
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며 동시에 선교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이다. 우리가  
지닌 중요한 부름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돕는 것이다.

이 부름은 보통 우



리가 처하여야 할 위치에 있어 우리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로우즈매리 커티스 네이더 자매님이  
어느 달 바쁜 관계로 회원 방문 교육을  
하지 못하다가 그 달이 끝날 무렵에  
하게 되었던 일을 상기해 본다. 그녀  
는 활동 상태가 저조한 어느 한 자매에  
게 그저 전화 방문만을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자매의 집을 방문했  
을 때, 네이더 자매님은 구세주가 니파  
이 백성을 방문했던 기사를 이 자매에  
게 읽어 주고 싶은 강한 느낌을 받아  
읽어 주었다. 그때 일어난 일을 네이더  
자매님은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깊은 관  
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  
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거기 그 페이  
지에 종이 조각을 끼워 놓아 주세요.  
다음에 제가 찾아볼 수 있게 말이예요.  
아, 거기도 한 장 끼워 주세요.'

"나는 그녀의 집에서 영을 강하게  
느꼈지요. 나의 복잡하고 매우 분주한  
일정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더군요.  
그 후, 여러 날 동안 나는 감사함과 힘  
이 더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여성으  
로서 기뻐함, 1994년 여성 대회 말씀,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95  
년, 67~68쪽)

성약의 여성으로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가 맺은 성약을 굳게 지킬 이유  
가 있다.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우  
리는 "의의 관"을 약속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리와 성약 25:13~16)

-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은 왜 중요한 일인가?
- 여러분의 생활에 즐거움을 가져다 준 성약 몇 가지는 무엇인가? □

# 가르치기 위해 준비함

여러분은 공과 시작 직전에 공과 준비를 하는 버릇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공과를 준비하는 동안 아마 시간에 쫓기는 기분을 느낄 것이다. 여러분은 이 타성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가? 여기에 그 방법을 소개한다.

레이 엘 라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한다.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기쁨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공과를 준비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흔히 우리는 공과 준비를 허드렛 일로 간주하여 공과 시작 직전까지 미룬다. 공과를 공과 시간에 임박해 준비하는 것은 피상적이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치 기도를 급하게 서둘러 하는 것이 효과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 자신도 공과를 그렇게 준비하여 왔다. 그러나 나는 공과 가르침을 잘 준비할 때에는 기다란 의욕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했다. 그것은 의미 심장한 기도를 드릴 때나 깊은 사색을 할 때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시간이 예배와 자기 성찰을 즐길 수 있고, 이해력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알았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과는 원리를 따르고 사려 깊게 계획할 때,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준비될 수 있다. 이제 내 자신이 공과를 효과적으로 준비한 과정을 아래에 소개해 본다.

1. 적어도 공과 시작 1주일 전에 공과를 연습한다. 이는 표제들과 중요한 성구 및 일반 개념들을 대강 훑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몇 가지 중심적인 개념과 성구들을 마음속에 새겨 둔 후, 그것들을 1주일 내내 현재의 일상 생활과 관련시켜 보면서 지낸다. 그 주 동안에 머리에 떠오른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 놓는다. 공과 준비를 마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작업을 시작할 때쯤 되면, 나는 공과 내용에 관한 나 자신의 생각과 느낌들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은 상태다.

2. 공과 공부를 위한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는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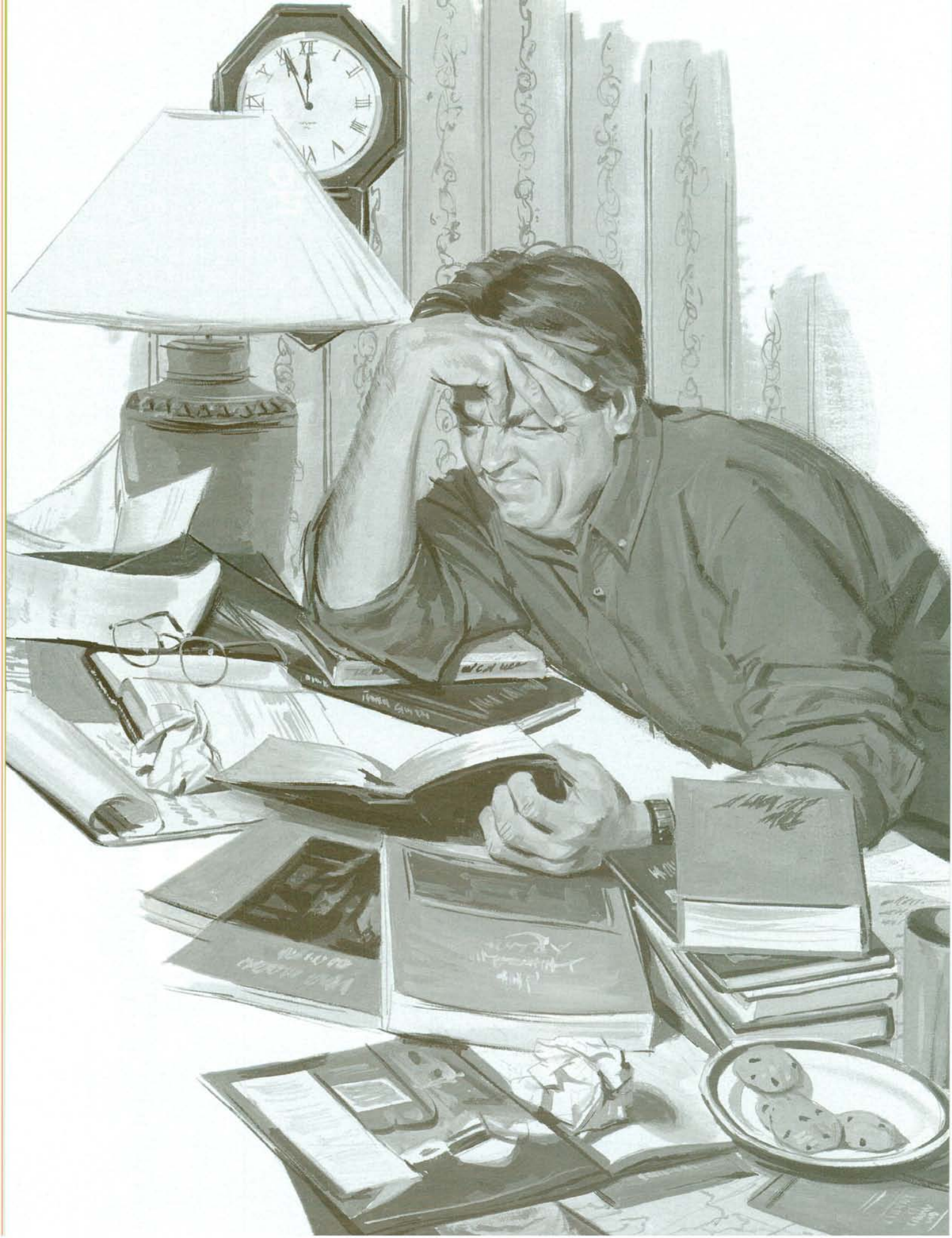
는 주방에 있는 식탁에서 공과 준비를 한다. 매주 같은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방 식탁에 앉으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즐겁고 영적인 추억들이 연상된다. 지난 공과들을 준비했을 때의 추억들은 내가 공과 공부를 하기 위한 기분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고독도 공과 준비에 중요하다. 나는 이른 아침에 공과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방해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대라면 어느 때든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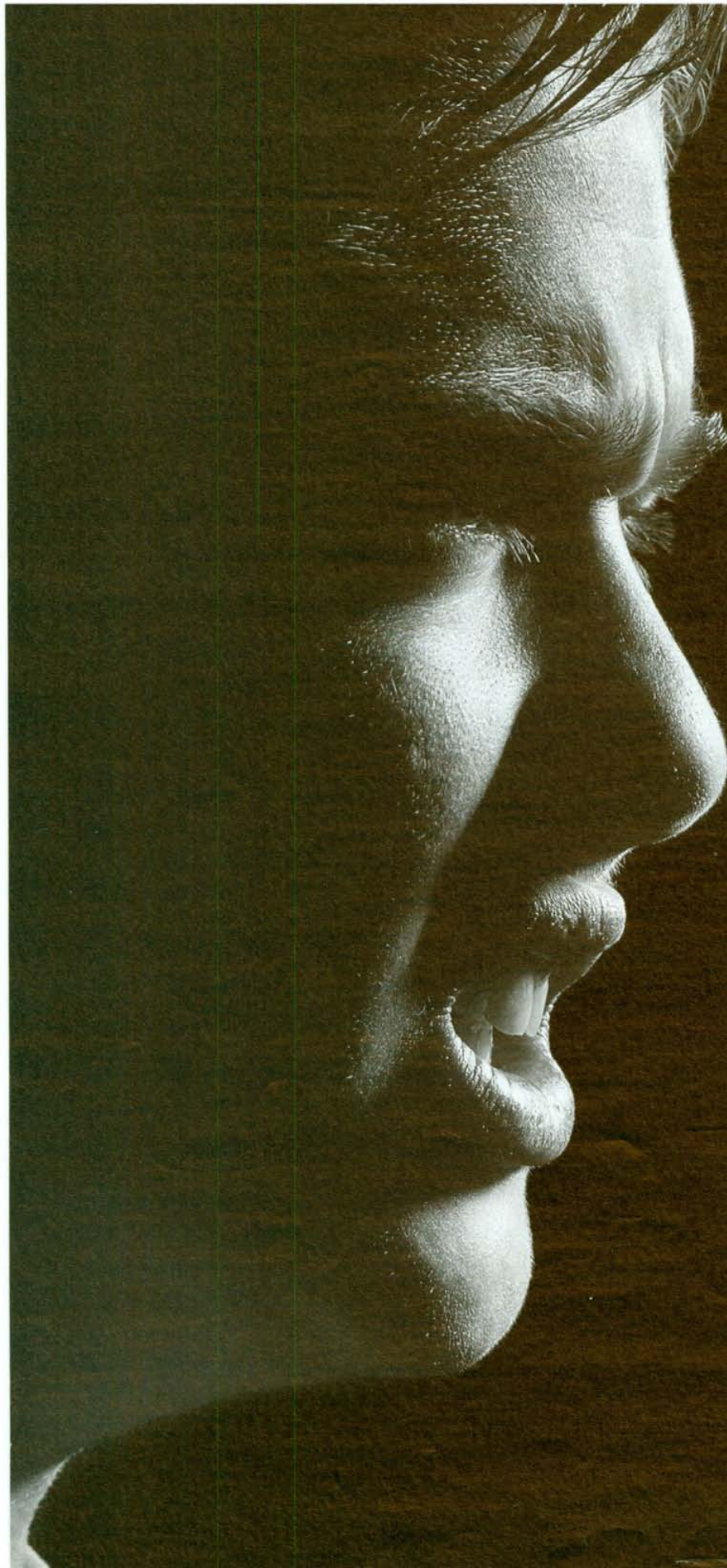
3. 필요한 서적과 기타 자료들을 수집한다. 경전과 공과 학습서는 물론 공과 준비에 필수적인 자료들이다. 그러나 교회 잡지나 그 밖의 여러 가지 간행물에서도 권고의 말씀과 영감의 말씀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나는 손쉽게 가져다 볼 수 있는 곳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공과에 몰두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영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4. 공과를 준비하면서 심사 숙고하고 기도한다. 나는 심사 숙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새로운 이해력이 열리는 일이 많다. 내가 공과 내용을 보다 깊이 파고들어 연구할 때, 공과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윤곽은 더욱 명료하게 떠오르기 시작한다.

5. 생각들을 체계화하고 설명 방법을 계획한다. 이 단계를 밟는 동안, 나는 공과 시간에 가르칠 지식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습득했음을 종종 깨닫게 된다. 나의 공과 준비의 최종 단계는 요점을 정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준비 기간 동안 얻은 지식들을 체계화하고 설명 방법을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공과를 가르치게 되어 있든, 공과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대체로 같다. 공과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면, 우리는 "성령 곧 진리를 가르치려고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의 도움을 받아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교사와 반원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게 된다. (교리와 성약 50:14, 22) □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장르

칠십인

사진 촬영: 뎀 앤더슨

**은** 동 분야에서 내 생애에 가장 가슴 설레게 했던 성취는 아마도 중학교에서 농구 대표팀을 구성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대표팀의 일원이 되어 다른 선수들과 함께 연습 시합을 하는 것만으로 그것은 짜릿한 기쁨을 주는 일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연습 시합 동안 일어났던 일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우리 팀 선수 한 명이 패스한 공을 그만 놓쳐 버렸다. 그런데 몇 분 지나서 그 선수가 또 같은 실수를 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가 불경스런 욕설을 내뱉었고 우리 코치는 그것을 들었다.

당시, 피시번 코치는 내가 일찌기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였다. 그는 머리가 좋았고 농구와 청남들을 아는 사람이었다. 연습 시합이 끝난 후 이 코치는 우리 팀원들을 불러 모아 우리의 연습에 관하여 이야기 했다. 그리고 나서 욕설 문제를 꺼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선수는 욕설을 할 필요가

# 불경스

없다. 욕설을 하는 것은 도리어 그 선수를 보잘것 없고 나약하게 보이게 할 뿐이다. 위대한 남자는 불결한 말을 쓸 필요가 없다. 불결한 말을 쓸 때 다른 사람들은 도리어 그를 소인으로 보게 된다.”

나의 농구 경력은 비록 짧았지만, 피시번 코치의 말씀은 언제나 나의 뇌리에 남아 있다. “위대한 남자(와 여자)는 불결한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최근에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뉴스를 들었다. “오늘 과학자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인간의 두뇌 내부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한 신제품 첨단 기계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도 과학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뉴스가 있다.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그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단순한 장치는 어쩌나 정확한지 두뇌 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인간의 영이 어

떻게 생겼는지 엿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인간은 자신이 쓰는 말과 말하는 태도로 자신의 내면 깊숙히 있는 실상을 청사진처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잠시 동안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지속될 인상을 형성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대해 오랫동안 지속될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들이 듣는 내용이 고상한 것이면, 그들은 우리와 우리들이 하는 말을 좋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듣는 내용이 불경스럽고 저속한 것이라면...

나는 톰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톰은 그의 아들 마이클과 마이클의 축구 팀 동료 몇 사람을 토요일 시합장까지 차로 바래다 주기로 승낙을 했다. 젊은이들은 차안에서 떠들고 있었고 톰은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축구장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운전 전에 정신을 집중할 수 없게 되자

톰은 그만 다른 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사고는 경미했지만 톰은 그의 불쾌한 심사를 불경스런 욕설로 풀어버렸다.

그날 오후 늦게 젊은 마이클은 그의 아버지가 교회 회원인지 아닌지를 그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는 물론들은 욕설을 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놀래어 “물론 너의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지.”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물론이라도 진실한 물몬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만일 우리의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대해 “그는 물몬이라도 진실한 물몬이 아닌 것은 분명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하겠는가?

불경한 욕설은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욕설을 들으면 불쾌하고 비열한 느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욕설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무례함을 드러내는 것이 된

# 런 욕설

우리는 같은 입으로 기도하고 증거하고 또는

성찬 축복을 한다. 그러므로 입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쓰는 말과 말하는 태도로 자신의 내면 귀속한 곳에 있는 실상을 청사진처럼 드러내는 것이다

다. 사람들은 옆에서 불경스런 욕설을 듣고 참을지 몰라도 그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그들은 욕설을 한 사람을 전보다 덜 존경하게 된다.

욕설 뿐만 아니라 욕설과 똑같이 해를 주는 — 아니 욕설보다 더 큰 해를 주는 다른 종류의 말들이 또 있다. 그것은 인종이 다르거나 신체 장애가 있거나 또는 그룹에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복을 주는 말이다. 그러한 말을 쓰는 것은 인종과 외모와 사회적 지위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세주를 노엽게 할 것임에 틀림 없다.

가장 불쾌한 말은 물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출애굽기 20:7 참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주님께서 노여워하실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을 듣는다.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의사 전달이다. 불경어의 정반대말인 기도 역시 우리의 가장 내면적인 속사람을 드러낸다. 찬송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진실한 소망”을 나타낸다.(찬송가, 61장 참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니파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린 말씀을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 구세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린 기도만큼 아름다운 말이 또 존재할 수 있는가?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웠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하였고”(니파이삼서 17:17)

말의 상반된 두 가지 표현을 우리는 이상과 같이 알아보았다. 가장 친한 말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쓰는 욕설이며, 가장 고상한 말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쓰는 말이다.

1887년, 대관장단은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부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야한 말과 불경어를 쓰는 관행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모든 교양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입니다. 말일성도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관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선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주는 기회는 한 번 밖에 없다고 한다. 이는 장차 교회 회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의 말하는 내용과 말을 듣고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 각자도 선교사들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 말은 인간들이 서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갖는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다.

우리의 말은 다양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주님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지내야 한다. □





# 아빠는 이런 말을 쓰실까?

캐롤리 에이치 스미스

**얼**마 전 집들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여섯 살 된 아들이 상스러운 말을 쓰는 소리가 귓결에 들렸다. 학교 운동장에서 익힌 말을 집에서 쓰는 것이었다. 전에도 애들이 그런 말을 쓸 때마다 으르고 꾸짖고 훈계했었지만, 그날은 새로운 방법을 쓰기로 했다.

나는 여섯 살 아이를 불러오게 하여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아들에게 나는 아빠가 그같은 말을 쓰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들은 고개를 흔들며 그렇지 않다는 표시를 했다.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말씨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빠는 그같은 말씨를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 가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단다. 심지어는 그같은 말을 예사로 쓰는 아빠 직장에서도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빠가 불결한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빠 근처에서는 점잖은 말만을 사용한다.”

우리는 같이 협력하여 새로운 가족 방안을 고안하였다. 이 방안에 우리는 “아빠는 이런 말을 쓰실까?”라는 표어를 붙이기로 했다. 어떤 말의 사용의 적절성에 의문이 생길 경우, 우리는 다만 “아빠는 이런 말을 쓰실까?” 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기로 한 것이다.

그날 뜰에서 가족 방안을 세운 이래로 우리 가족은 가정에서 자주 이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은 불결한 말을 듣는 일이 거의 없다. 나는 모범을 보이는 남편과, “아빠는 이런 말을 쓰실까?” 표어를 적용하는 가족 방안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는지 모른다! □



# 하수도 안에 숨은 적

존 바이다웨이

**중** 학교 시절에 나는 어떠한 싸움에도 관여해 본 적이 없다. 이 점에 대해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치고 받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학교에서 귀가하는 길에 한 싸움쟁이에게 걸려 들었다. 상대는 키가 28센치 밖에 안되었지만 이 적과의 싸움은 내가 여태까지 겪어 본 싸움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격렬한 싸움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잡지책과의 싸움이었다.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우리 집 현관에서 볼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나는 학교 교실까지 매일 걸어서 왕래하였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학교측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푸른 잔디의 좁다란 길을 건너다가 차도의 연석 옆의 하수도 안에 한 잡지책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알고보니 음란 잡지였다. 나는 재빨리 하수도에서 눈길을 돌려 계속 집을 향해 걸어갔다.

음란 잡지가 눈에 띄었던 것이 나의 싸움의 시작이었다. 매일같이 학교에 갈 때나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하수도의 그 유혹물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왜 그 잡지를 집어 내어 치워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손을 대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보면 어찌 되겠나? 우리 집 쓰레기 통에 집어 넣었다가 아빠가 보시면 어떡하고? 그것을 집어 내어 보았다가 그 그림 말고 또 다른 불만 한 것이 나타나면 어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운 생각들이 앞섰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 한 쪽 구석에서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상당히 그럴 듯한 생각들이 매일같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지도 몰라.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넌 지나치게 보호 받는, 천진 난만한 애승이가 되고 싶진 않겠지?" "설마 그것이 무슨 해를 끼칠려고? 회개는 나중에 해. 누가

알기나 하나?"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서 어느 날 교사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성구를 가지고 대응하셨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다. 듣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경전을 살펴보고 유혹과의 싸움에 관한 이런 성구를 발견했다. "주 앞에 너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따르며,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너희를 뒤덮지 않게 하(라)"(엢마서 13:28)

신약전서에도 다음과 같은 좋은 성구를 발견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13)

내가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은 이것이었다. 겸손하라.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시험을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라. 나는 차도를 건널 때 다른 장소에서 건너기 시작했다. 잡지는 아직도 하수도 그 장소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날이 지나면서 이 두 성구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잡지가 있던 그 장소 옆을 지나다가 그 잡지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하수도 외관을 보아 도로 청소부가 최근에 그 부분을 지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도로 청소부 — 이는 참으로 적절한 말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고 우리는 협력하여 이 싸움에서 이겼다. 호기심, 합리화 그리고 나태는 용기, 자제심, 강인한 정신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만다.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력과 담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어느 싸움도 그리고 그 어느 승리도 유혹과의 싸움에 있어서 만큼 힘들고 감미롭지는 않다. 중학교 시절에 나는 어떠한 싸움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성구의 도움을 받아 28센치의 잡지를 굴복시켰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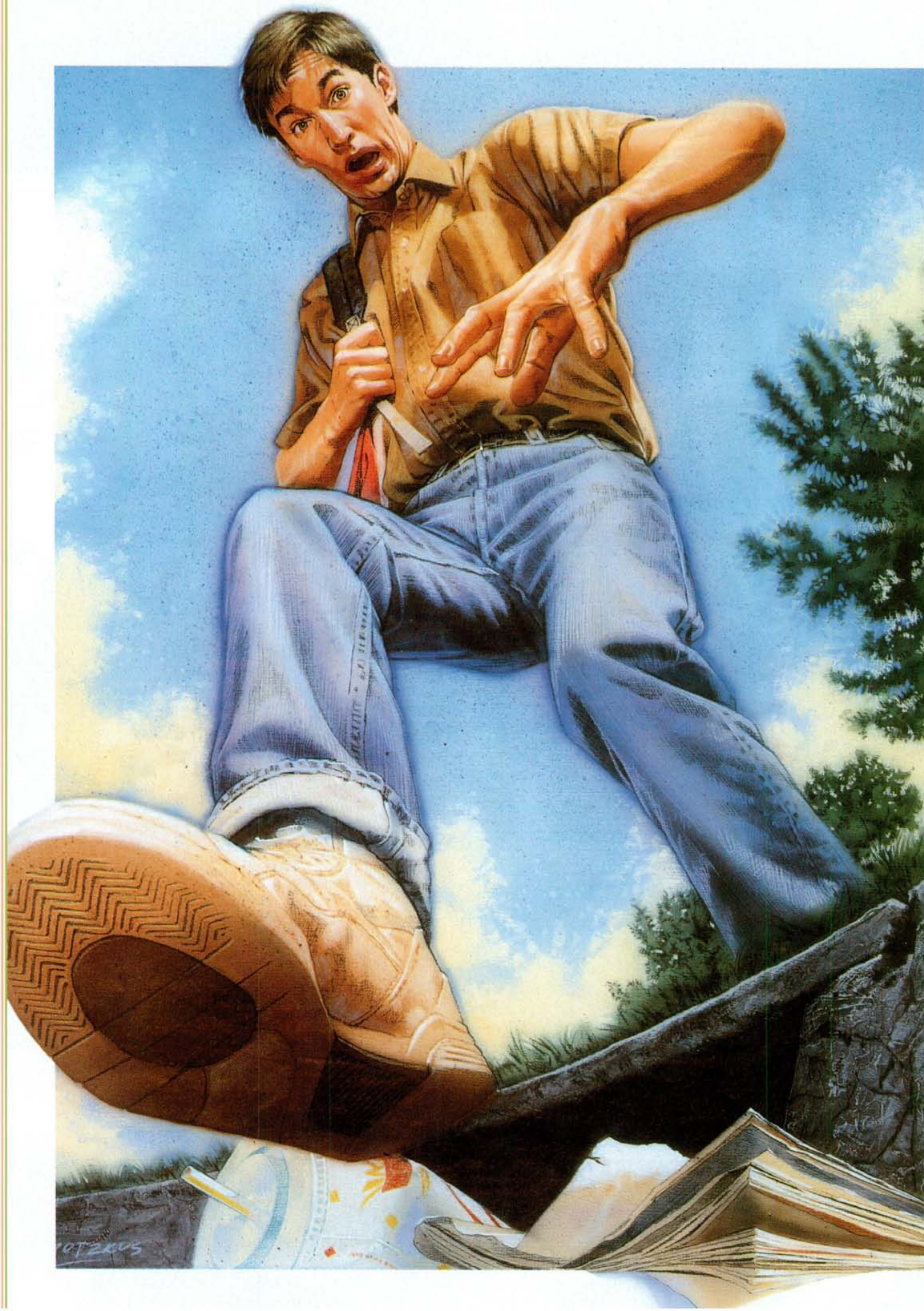


그림: 로저 모스쿠스



# 생명의 나무의 꿈

리하이의 시현에 대한 이야기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던 바로 내가 시현을 본 것이다.”

물몬경의 예언자인 리하이는 이러한 말로써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하는 신성한 시현을 소개한다. 시현에서 “죽히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만큼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 리하이의 아내 새라이아와 두 아들인 샘과 니파이는 리하이의 권유에 따라 열매를 따 먹었으나, 슬프게도, 부친의 말을 거역하는 아들인 레이맨과 레뮤엘은 “리하이에게로 와 열매를 따 먹으려 하지 않았다.”

리하이는 시현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생명의 길을 따라 나무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앞으로 밀려 나왔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나아갈 길을

잃게 되는 것을 본다. 쇠막대를 줄기차게 단단히 붙잡은 사람들은 결국 나무가 있는 곳으로 와 열매를 따먹는다. 열매를 맛보고 난 후, 리하이는 “그의 심령이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건물”에서 손짓하여 부르며 조롱하는 무리들의 야유에 굴복하고 만다.(니파이일서 8:2~35)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는 아버지가 본 것과 같은 시현을 보고 시현에 나오는 상징의 의미를 알았다.(니파이일서 11~14장: 15:21~34 참조) 전세계의 말일성도 예술가들은 수년간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니파이가 해석한 대로 리하이의 시현에 나오는 상징을 그들의 간증으로 나타내었다. 다음의 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범사에 주님의 계명 지키기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왼쪽: 리하이의 꿈, 1995년 쿠르트 세크비스트, 모크페르드, 스웨덴. 목각나무에 색칠한 것임.

(150 x 101 x 101 cm) 리하이가 “마치 새로운 세계와도 같은 크고 넓은 벌판”이라고 한 것은 비유로 말한 것으로 해석하면 이 세상 즉, 지구를 뜻한다.



아래 왼쪽: 생명의 나무, 1990년, 카주토 우오타, 오사카, 일본. 색채 및 석고 판 (139 x 138cm) 아래 오른쪽: 리아호나, 1990년, 로웰 피트, 샌 레몬, 캘리포니아 주, 미국. 금속 및 유리(16 x 11 x 11cm) 광야에서 리하이를 안내해 준 리아호나의 위쪽에 생명의 나무가 보인다.



이 기사의 자료는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마크 스테이커의 여기를 받아 게재한 것임.



위 쪽: 요셉 스미스와 생명의 나무, 1987년.  
후안 엠 에스코베도, 칼리엔테, 네바다 주.  
미합중국. 목판 유화(127 x 76cm) 생명의  
나무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이 멕시코의  
민화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길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아래 쪽: 쇠막대와 생명의 나무, 1994년.  
나바호 인디언 화가 해리스 비게이 이세,  
에스파놀라, 뉴 멕시코 주, 미합중국. 불에  
구운 진흙(23 x 18 x 18 cm)

오른쪽: 리하이의 꿈, 1875년경.  
데이비드 하이람 스미스, 캔버스 유화  
(61 x 45cm) 화가는 아버지인 요셉  
스미스가 1844년에 순교당하고 몇 개월  
후에 태어났다. 그림에서 리하이는 "주님의  
영"과 함께 가고 있다.

(니파이일서 8:5~6; 11: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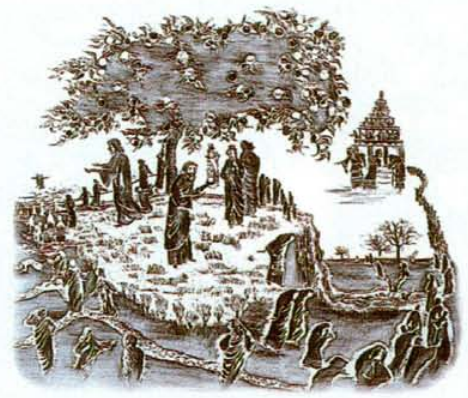
성도의 빛/1996년 9월호



사진 촬영: 알 더 블라크, 복원: 마이클 로빈슨,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록 보관소의 허가를 받아 복제한 것임. 인디펜던스 시, 미주리 주.



오른쪽: 리하이의 꿈, 1984년, 달 처처, 빅토리아, 브리티시 콜럼비아, 캐나다. 박엽지에 밀랍으로 처리한 미술품 (71 x 61 cm) 열매가 달린 생명의 나무로 가던 몇몇 사람들은 그림의 우측에 있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로 가려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화가는 암시하고 있다.



왼쪽: 생명의 나무, 1995년, 왕슈, 장와, 대만. 명주에 그린 템페라화 (170 x 68cm) "산수화" 스타일의 그림은 가족과 복음을 나누는 기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문은 니파이일서 8장 12절을 인용한 것이다.

아래 쪽: 리하이가 시현을 통해 본 생명의 나무, 1992년, 로버트 엘로우헤어. 스노우플레이크, 애리조나 주, 미합중국. 캔버스 유화 (121 x 76cm) 화가는 전통적인 상징을 이용하여 미국의 원주민이 리하이의 자손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나타내었다.

오른쪽: 경전과 친하십시오, 1993년, 타이치 아오바, 사이조 시, 에히메겐, 일본. 불에 구운 진흙 (35 x 26 x 10cm) 리하이가 시현을 통해 본 생명의 나무는 물론경에서 인용한 다른 중요한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다.









오른쪽: 쇠막대와 장막, 1975년,  
프란츠 조겐슨, 프로보, 유타 주,  
미합중국. 주물 늦쇠  
(252 x 213 x 16cm) 필멸과 불사  
불멸의 사이에 있는 장막을  
통해서 내미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의 손은 쇠막대가  
연장된 것을 뜻한다. 소년이 손을  
위로 뻗혀 쇠막대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아래 쪽: 생명의 나무, 1994년,  
아부 하산 콘테, 프리타운,  
시에라 레오네. 이플리케,  
천에 천을 대어 만든 것임.  
(152 x 99cm) 성스러운 계약을  
맺기 위해 이용한 전통적인  
아프리카의 교환 수단인 가축은  
이 작품에서 백발의 리하이가  
주님과 맺고 있는 성약을  
나타낸다. 상단의 우측에 있는  
리하이의 가족은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으나, 레이맨,  
레뮤엘 및 앉아 있는 두 사람은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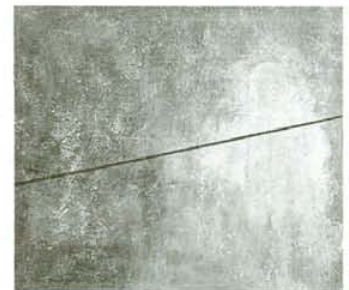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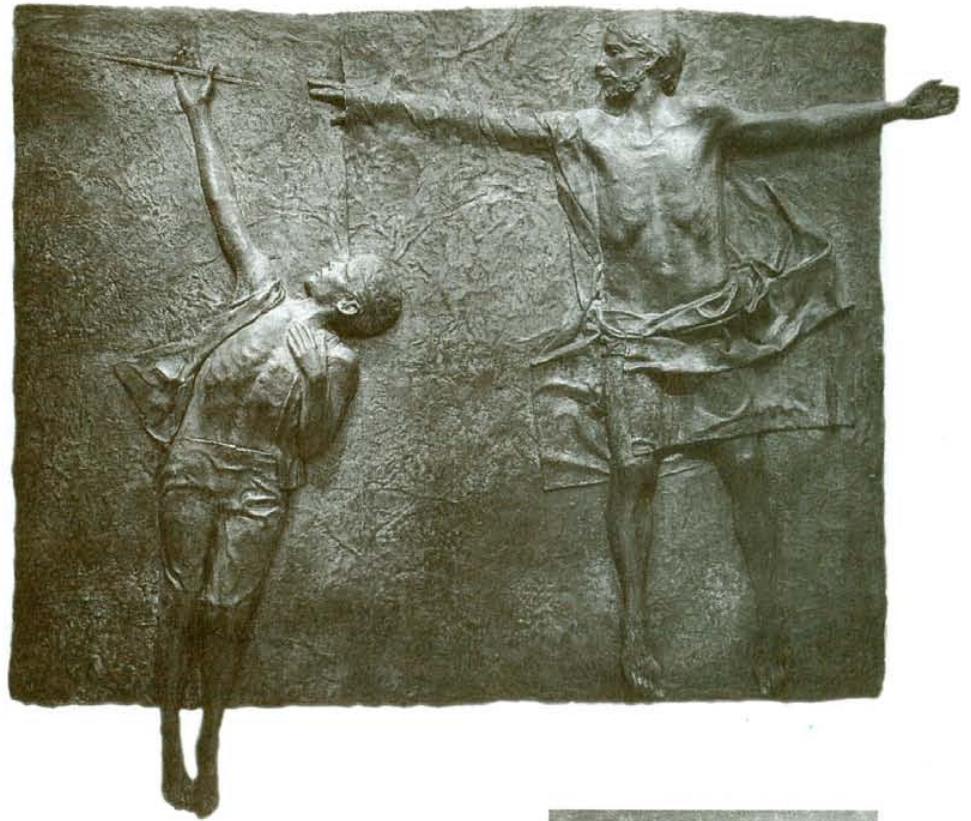


사진 촬영: 양현진



위 쪽: 쇠막대, 1989년, 요한 헬게  
벤딘, 호취스타트, 독일.  
캔버스 유화(78 x 71cm)  
화가는 리하이가 꿈 꿈의  
단 한 가지 요소 즉, 구세주를  
나타내는 광채가 나는 분에게로  
인도하는 쇠막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요셉의 아들,

제이 토드 마틴과 리사 에이 존슨



여러분은 경전을 읽다가 특별히 감명 깊은 구절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조언과 격려를 주는, 특별히 여러분만을 위해 쓰여진 것 같은 그런 구절 말입니다.

헝가리의 미쉬콜즈에 사는 샤모스팔비 가족은 바로 그러한 경전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요셉 샤모스팔비와 이름이 같은 그의 아버지 요셉은 애급의 요셉이 말일의 복음 회복에 관해 예언

한 부분이 나와있는 니파이이서 3장 15절을 읽으며 미소짓곤 합니다.

“저의 이름은 나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저의 부친의 이름과 같을지며, 저는 나와 같으리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이루게 하실 일은 주의 권세로 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샤모스팔비 가족은 이 경전 구절이 요셉 스미스 2세와 그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인 줄은 알지만, 너무나 겸손하여 그것을 자신들에게 적용시키기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름은 같고, 이들은 주님의 권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살인 요셉과 열아홉 살된 누나 알렉산드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습니다.

아마도 자녀들을 인도한 것은 부모였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시내에서 선교사들을 만나 집으로 데려와서 점심 식사를 했으니까요. 샤모스팔비 가족은 기독교나 그 외 어떤 종교도 금지된 체제 하에서 성장했습니다. 복음은 전혀 생소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들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삶의 목적에 대해 정말로 알고 싶었어요.”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알렉산드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들은 우리가 아는

다른 젊은이들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경전이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그들에겐 의지할 누군가가 있었어요. 주변에는 음주로 감각을 무디게 하고 인생의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말이에요.”

부모님은 이들이 토론을 듣기엔 너무 바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요셉과 알렉산드라는 계속했습니다. 3토론까지 하고 교회 모임에 몇번 나갔을 즈음, 둘은 교회가 참됨을 알게 되었고 침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4월이었는데, 햇빛이 창문을 통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모두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요. 우리가 다른 교회에 갔었을 땐 냉랭한 분위기였죠. 우리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영을 느꼈고 다시 돌아와야 함을 알았어요.”라고 알렉산드라는 말합니다.

요셉과 알렉산드라가 침례를 받기 위해 허락을 구했을 때,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것을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놀라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가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이 가르치려 하는 것과 같은 선한 원리들과 높은 도덕 표준을 가르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부모님은 승락하셨고, 요셉과 알렉산드라는 지부의 열셋, 열네 번째 회원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침례식에 오셨어요.” “실외 수영장에서였어요. 새들과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영이 매우 강렬했고, 부모님께서서는 더욱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다음날 성찬식 시간에, 우린 간증하도록 부탁 받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직장에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혼자 참석하셨어요.”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과 알렉산드라는 곧 활동적이고 아주 열성적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둘다 리코더나 기타같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가와 민속 음악을 노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지부에

샤모스팔비 가족이 선교사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을 때, 대접 받게 될 사람들이 자신들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오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 요셉

서 음악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주 선교사들을 돕고 있으며 구도자를 도와주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둘은 특히 부모님에게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께 교회에서 한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곤 했어요. 저희와 함께 교회에 나오시도록 초대하면 자주 오셨어요.”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샤모스팔비 부부가 침례 받는 것은 정말로 시간 문제였습니다. 침례는 물론 아들 요셉이 주었습니다. 일단 회원이 되고 나자, 이들의 삶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직장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포도밭과 가족이 운영하던 술집도 팔았습니다. 샬로스팔비 가족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모든 문을 열어주심을 느끼며 밝은 미래를 바라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선교 사업을 한 후에 미쉬골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합니다. "저는 어려서 복음을 알게 되어 행복해요. 좀더 '세상적으로' 되기 전에 말이에요."라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



그는 "나의 아들이,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엘마서 37:35)라는 성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알렉산드라는 집 근처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지부에서 청년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기 때문에 워드 회원들을 위해 교회 서적들을 번역하는 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사전을 찾으며 이렇게 하는 데엔 시간이 꽤 걸리지만, 알렉산드라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발견하기 전에는, 미래를 위해 일하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디에나 전쟁 뿐이었고 세상이 결국은 재난 속에서 종말을 맞고 말 것 같았죠.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저는 그런 슬픔에서 벗어났어요."라고 알렉산드라는 말합니다.

알렉산드라는 자신에게 꼭 맞아떨어지는 듯한 성구를 찾아냈고 이것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너희의 슬픔과 두려움과 너희가 얽매인 속박으로부터 너희를 풀어 쉬게 하시리라."(니파이이서 24:3)

경전을 상고하고 복음을 탐구함으로써 알렉산드라와 요셉은 인생의 방향과 의심에 대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경전을 펼쳐서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지 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샬로스팔비 가족이 선교사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을 때, 대접 받게 될 사람들이 자신들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오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

한때, 알렉산드라와 요셉은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경전과 교회의 다른 가르침들로부터, 그들은 의심을 대신해 주는 방향과 해답을 얻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알렉산드라와 모셉 —  
헝가리에서 복음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한  
활동에서

# 키 올려 재기

글: 로이드 뉴웰

그림: 그레그 뉴볼드

**해** 마다 우리 생일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데리고 아래 층으로 내려가셔서 지하실 벽 한 면에다 우리의 키를 표시해 주셨다. 이것은 특히 나와 형들에게 있어 중요한 의식이었다.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를 가장 높은 각도까지 들어 올리고, 숨까지 멈추어서 최대 한도로 키가 크게 나오게 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아버지가 연필을 벽에서 떼시는 것이 느껴지면, 나는 돌아서서 그 해 내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가늠해 보곤 했다.

어떤 해에 나는 표시가 이전 해의 것과 별 차이가 없고 형들의 표시보다 한참 아래인 것을 보고 실망했다. 그리고 다른 해에는 키가 아주 커져서 직업 농구단에서 나를 스카웃하려고 위 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으로 걸어 나오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변함없는,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아버지의 반응이었다. 내 키가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 그저 보통이든지간에 아버지께서는 여전한 미소와 함께 내 어깨에 팔을 두르시고는 “얘야, 난 네가 자랑스럽구나.”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그 당시에 나는 왜 아버지께서 내가 내 것과 다른 표시들 까지도 넘겨 자랐을 때 더 기뻐하시거나, 아니면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었을 때 더 실망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했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인생의 밑불과 썰불, 또한 자식들의 변치 않는 가치에 대해 뭔가를 알고 계셨음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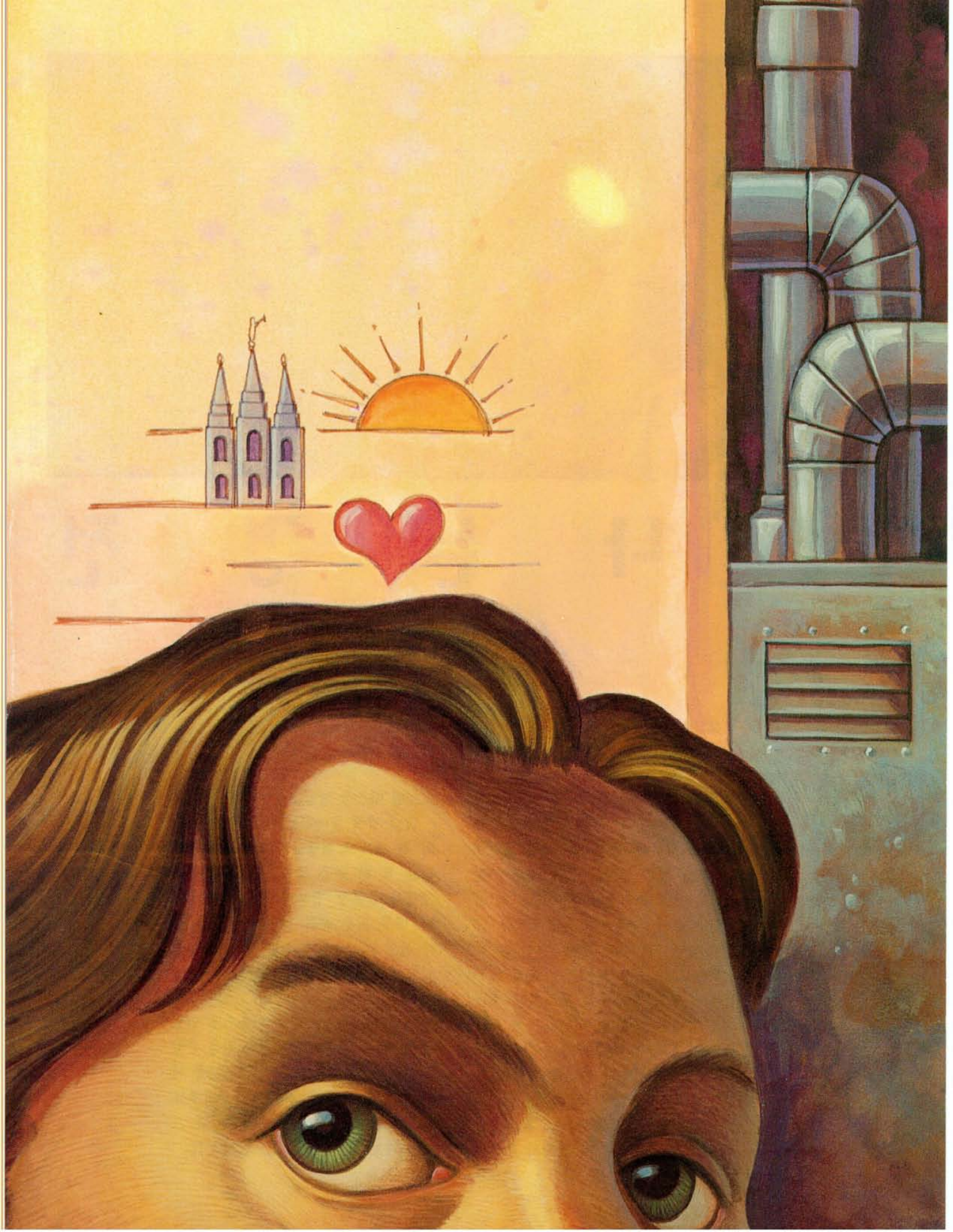
내가 다른 이들에 비해 크거나 작거나 그 분께는 별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분은 나를 단지 아들로서 사랑하셨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였다. 나는 때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키를 재신 이유가 단지 우리의 성장을 똑같이 자랑스러워함을 보

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 어차피 우리는 키를 올려 재었지만 — 하는 의문을 갖곤 한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계셨다. 그분은 우리가 개인적인 성장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할 때, 스스로를 타인보다 우월하게, 또는 열등하게 여기게 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둘다 똑같이 그른 태도로서, 아버지는 내게 우리가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좀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버지가 우리의 키를 재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서있는 곳 —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 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키가 크다는 사실은 아버지에게 육체적인 모습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내가 해마다 지하실로 내려갔던 것이 나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평가할 틈을 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일생을 걸쳐 영적으로 성숙해감에 따라, 무한하신 사랑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가치를 알고 계시며,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하다. □







# 빛나는 경전

릴라 바틀릿 쿤스

**나**의 아주 어린 시절 기억 중의 하나는 다섯 살 때 오래된 와드 건물 지하실에서 주일학교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나는 어느날 선생님이 요셉 스미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나타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는 것을 들으면서 밝은 햇빛 즐기 안에서 먼지 입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지금도 거기 앉아서 빛기둥에 둘러싸인 채 귀기울이고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대화하는 요셉 스미스에 관해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부풀어

오르던 따스한 느낌을 기억하고 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의 책 중에서 선생님이 읽어주신 것과 같은 책 한 권을 찾아냈다. 그때 나는 그것이 물몬경 합본이라는 것을 몰랐다. 비록 읽을 수는 없었지만, 책을 손에 들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주일학교 시간에 가졌던 느낌이 다시 살아났다.

그후 자라서 그 책을 처음으로 읽었을 때, 나는 똑같이 따스한 느낌을 받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이 느낌을 여러 번 반복하여 경험해 왔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말씀들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전을 읽으면서. □



**그림: 스티븐 로이드 닐, 생명의 나무에 관한 리하이의 시현, 1987년.**

미국 오레곤 주, 펜들튼, 유화 (243x121cm)

세계 문명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고하고 일본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한 것과 같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화가는 생명의 나무에 관해 보편 타당한 탐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인물들은 화가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이다. "생명의 나무" 리하이의 시현에 관한 다른 그림들(34쪽)을 참조한다.



“**족**히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만큼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 보아… 또한 내가 그 열매를 따먹음에 나의 심령이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하여진지라, 이 열매가 다른 어느 열매보다도  
먹을만하다는 것을 알았던 나는 나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열매를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졌느니라.”(니파이일서 8:10, 12)

“생명의 나무” 34쪽 참조